

#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 ● 글 쓰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서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저방담

### ■ 450여단체... 자발적 신행모임

1980년대 초반 직장·직능 신행단체가 하나둘 생겨나면서 직장·직능 불교의 태동을 알렸다. 그러나 직장·직능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 직장·직능 불교라는 단어도 이 때 비로소 등장했다.

직장·직능 단체는 전국에 450여곳이 분포해 있다. 이 가운데 40여 불자회가 공무원, 철도, 전력인, 의료인, 경찰, 금융단, 운전기사, 교장인, 산악인 등 분야별 연합단체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가장 많은 소속단체를 보유한 단체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120여 경찰불교회와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0여 불자회가 연합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정인불자연합회와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철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전력인불자연합회, 금융단불자연합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도 적게는 10개 단체에서 많게는 50여곳을 아우른 신행조직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대한 조직의 이면에는 운영 자체도 버거워하는 개별 모임의 어려움이 그림자로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인재 양성, 회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내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결과다. 직장·직능 분야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 포교는 없고 신행만 있다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적인 신행모임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찰이 아닌 일터에서도 도반을 만나는, 이른바 개별적인 신행활동에서 공동체적 신행활동으로 변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됐다. 또한 직장·직능 불교는 거사불교를 일으키는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성불자들이 주축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직능 불교는 실질적인 불교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일터불자

# 신행 - 포교는 하나! 마인드를 바꾸자

들이 포교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다. '직장포교'라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큰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터불교는 법회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신행활동 외에 포교활동을 따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일터불교의 전반적인 수준이 기본적인 신행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신심을 필요로 하는 포교는 불가능하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터불교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부 단체에서는 대부분이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승기신론> <구사론>과 같은 어려운 논서를 공부하는 왜곡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불교와 모임을 '와

우리 불자회'라는 영역에 갇혀 있는 일터불자들의 '그들만의 신행'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다. 김태영 문사수법회 상임법사는 "직장불자들은 자신의 신심과 신행을 접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그들만의 세계를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내적 구성력과 신행을 지도해줄 지도 법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터불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는 중단 차원의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일터를 방문해 일터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순환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올바른 교육과 인재 양성은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불교대학과의 연계교육, 사찰과의 자매

## 90년대 중반 자발적 신행공동체로 정착 거사불교 진원지... 교육·포교 시스템 부재 직장전문포교사제 도입 등 동기부여 案 필요

세사리'로 여기는 잘못된 신행의 전행이라 할 수 있다.

### ■ 일터불교 지원, 큰 틀이 필요하다

직장·직능 불교 태동 이후 '일터불교'라는 큰 그림을 바탕으로 이에 맞는 교육·포교 시스템을 갖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스스로 생겨나 일정한 틀이 없이 유지되는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따라서 중단에서 개별 단체들의 창립에서부터 법회 운영, 회원 교육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 일터불자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중단은 일터불자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원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도법사 없이 열리는 현 직장법회 풍토

결연 등 지역불교와의 연계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안양시청 불자회의 경우 인근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대학과의 연계로 회원들의 불교적 소양을 심어줌으로써 회원들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은 "불교대학과의 연계교육 이후 회원들이 자신의 신행은 물론 포교활동에 매진, 회원이 30% 가량 늘었다"고 소개한다.

### ■ 포교시스템·인식 전환 필요

일터에도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불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조계종 포교사교사시험을 거쳐 포교사 자격을 품수 받은 이들은 100여명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교활동에 나서지 않거나 활동이 미진한 이유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기 때



일터불교는 거사불교의 전행지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지않은 신행에만 치우친 활동을 펼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직장·직능불자들이 2002년 열린 환경살리기 경기대회에서 경기대회 '만생명을 위한 서원'을 낭독하는 모습.

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직장전문포교사제도는 좋은 대안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곽임호 포교사는 "직장불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고시를 거쳐 직장전문포교사 자격을 부여한다면 지금보다 포교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전문포교사들의 활동을 통해 직장·직능 분야의 신행·포교체계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터불자들의 신행마인드 변화는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핵심과제다. 일터불자들은 '일터 신행모임'이라는 인식이 강해 법회, 성지순례와 같은 신행 중심의 제한된 활동을 펼친다. 회원 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불자회가 없는 현 상황은 이를 반증한다.

최근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는 현상은 신행의 범위가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우리'로 신행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를 위한 불교에서 '남'을 위한 불교로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행 불자회 지도법사 법현 스님은 "조직적인 체계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일터불자들의 신행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은 요원하다"며 "불교계는 일터불자들을 교육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고 일터불자들은 신앙심을 구체화하는 신행혁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봉영·김철우 기자

### ● 모범사례 ●

‘사람’이 중심이다  
주인의식·결속력 ‘탄탄’

#### #1 한국은행 불이회

‘금융계 불자회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불이회(회장 하용이). 1985년 금융계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불이회의 전통은 20년째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법회를 병행해온 점이다. 이 같은 불이회의 저력은 단연 ‘사람’ 중심의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갖은 인사이드에도 안정적인 불자회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사 섭외, 법회 공지 및 집전, 기회, 참석 독려 등을 40여 회원들이 맡은 소임별로 ‘알아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이회가 이처럼 구축한 인적 인프라는 동종 업계의 불자회 결성에 도화선이 됐다. 80년대 직장불자회가 흔하지 않던 때에 ‘일터불심’을 일으켜, 국내 20여개 금융기관 불자회 결성의 모태가 됐다. 불이회 하용이 회장은 “회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먼저 찾아서 척척 해내기 때문에 모임이 잘 굴러갈 수밖에 없다”며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이 불이회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라고 말했다.

‘할 일’을 만든다  
‘환경·봉사’로 관심 폭 넓혀

#### #2 철도공사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

‘복자부’ 조직, 매월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지원. ‘교화부’ 결성, <선가귀감> <초삼십자경문> 등의 경전강의 및 3천매 월아장 정진 봉행. ‘승만부인회’ 구성, 법우회원 부인과 지역 여성 불자들이 열거전선운동 캠페인 정기적으로 전개.

한국철도공사 서울 성북승무사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우라)가 ‘하는 일’이다.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법우회의 조직특성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할 일’을 만들어 놓고, 단위 부서들을 조직한다는 점이다. 이는 ‘관심 폭’을 확대시켜 법우회원들의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의미다.

이 같은 ‘할 일’ 중심의 인프라 구축은 법우회 활동을 지역 포교, 환경 운동 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정찬연 교화부장은 “법우회는 신행, 환경, 사회봉사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단위조직을 구성했다”며 “이 같은 구성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연 속에 천동,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 무형공** 천동 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살균력 100% 살균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 필터** 산소와 리튬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 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 반영구** 후면 산소제 스크린과 카드블레이드의 세척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소형** 높이 30cm, 폭 20cm, 무게 9kg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이동 설치 가능합니다.
-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 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안전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 조절기능** 5층에서 84층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동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동번개는 오존을 생성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자중에 떨어져서 가나 산화시킨다. 리빙에어는 아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중체를 가라앉히지 않고 흡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써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 사 제작 수입업체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프레이한 크기 84층까지 청정기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 인증서

-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간인 오존(O<sub>3</sub>)) 안전수치 0.05ppm이하
-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증
- ▶ EPA : 미국 환경보호청(잠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할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원형 생인물 배양법 배양법 상생배양법 배양법 배양법

#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중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실험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종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내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중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접 현종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요소준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55-1114**

HYUN PUNG F&B CO.LTD